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발행인 권기섭 편집인 김덕호

발행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7-8층
02-721-7100 www.eslc.go.kr

발간일 2025. 2. 18.

f eslc.kr i eslc.go.kr eslc.go.kr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The Social Dialogue 대화 Brief

2025년 - 2호 | 통권 69호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토론회’ 개최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왼쪽 아홉 번째)이 1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경사노위 주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월 23일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이하 ‘계속고용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기섭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일하는 모든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급한 과제”라며, “지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2부 종합토론에서 이영면 동국대 교수(왼쪽 여섯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난 2013년 60세 법정 정년연장을 하면서 노사 갈등을 겪었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희 원장(L-ESG 평가 연구원)은 “(한국은)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이 불일치 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야 된다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과 퇴직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 정년연장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임금 불안정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대기업에 시차를 두고 적용하되 조기 도입 시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수영 특임교수(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는 “고령자의 정년연장이 청년층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과의 괴리를 축소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소득의 9%)과 퇴직연금(소득의 8.33%)을 합하면 총 소득의 17.33%를 적립할 수 있고, 특히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수급할 수 있어 소득크레바스 기간 중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계속고용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고, 계속고용위원회 노사정공 간사들과, 청년, 중



▲ (왼쪽부터) 발언하는 노동계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분부장, 경영계 임영태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청년대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장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는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노사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어 우리에게 맞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현재의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두고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연차가 아닌 직무 기반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대로 논의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고용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대표자 단위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추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esc](#)

담당 전문위원실 김태환 전문위원

세대 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 개최

- 사회적 대화 의제 관련 세대간 공감대 형성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월 1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12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회의는 사회적 대화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노사정 대화를 촉진하고 풍부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기권 전(前) 고용노동부 장관, 이성경 전(前) 한국노총 사무총장,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석호 전(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 문위원, 이화섭 청년재단 매니저 등 스타트업 및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사회적 대화 현안 의제인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문제 해결 방향’과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했다.

권기섭 위원장은 “장기 저성장의 경고음,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화로 ‘피크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문제해결의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걱정과 사회적 대화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사회적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과 타협의 지점을 발견하고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권기섭 위원장이 인사말씀을 전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노동계 불참으로 사회적 대화가 일시 중단된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 운영을 책임지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사노위는 다양한 경력과 연령대를 가진 자문위원들과 사회적 대화 의제에 관한 직접적인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국민적 관심이 크면서도 세대 간 이해가 상충하는 주제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한 소통창구로 자문회의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eslc](#)

담당 기획과 류형민 사무관

“소상공인 현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필요”

-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경사노위 방문 간담회 -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2월 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간담회에서 임원진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월 7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이하 ‘소공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소공연의 요청으로 최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소공연은 업종 공통현안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와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구분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권기섭 위원장은 “국내 사업체의 9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의 지킴이이자,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며, “최근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초래되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자”고 하였다.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의 지름길로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경기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주휴수당의 폐지, 소상공인 저출산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을 요청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공연과 함께 협력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장 마련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사노위는 지속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등과 같은 다양한 계층들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eslc**

담당 대외협력실 이현욱 전문위원